

# 손수 만든 햇차 향에 속세 잊고...

## 불교문화 체험기행 5월

### 쌍계사 차축제 · 제다 현장실습

과 명인들을 배출하기도 했는데, 이 탐비의 비문에 필패의 대가이며 차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진감선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참배를 마친 기행단은 맑은 물살이 흐르는 화계천 물다리를 조심조심 건너 아생차밭에 도착했다.

"왼손으로 줄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잎만 살짝살짝 따시오. 특히 작고 길죽하고 보들보들한게 좋은 잎입니다!" 이기영사범(효율수제차 대표)이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첫차 따는 법을 설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향긋한 차가 되기까지의 힘든 과정을 겪었기에 더욱 그 맛이 각별했으리라.

뒤고 또 뒤어내 깊은 맛을 지닌 차가 되는 과정에서 한날 중생에서 뒤고 또 뒤어내 깨달음의 경지에 드는 수행자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은 왜일까. 예로부터 많은 선사들이 차를 즐겨 마셨던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차나 마시고 가계(喫茶去)' 화두로 중생들을 깨우쳤던 조주스님의 가르침을 한 잔 차에서 음미해 본다. 차를 마시는 작은 일상이



화계천가 비탈진 아생차밭에서 제다에 나선 불교문화 체험기행단.

## 아홉번 뒤어 깊은 맛 지닌 차 뒤고 또 뒤어 깨치는 수행 연상

### 최치원이 쓴 진감선사비 천년세월 '우뚝'

명했고, 아슬아슬하게 마르지 않은 아생차 밭에서 일행들은 첫차 향기에 힘입어 차 제다(採茶)를 만끽했다.

저마다 따른 첫차를 모아 효율수제차 가마에서 차뒤음이 시작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두꺼운 장갑을 끼고 4계 조로 나눠 700℃가 넘는 뜨거운 가마에 첫차를 쏟아 부었다. 하얀 연기와 함께 상큼한 첫차냄새가 코를 찔렀다. 뜨거운 가마에서 첫차가 타지 않고 뒤어질 수 있도록 바닥 길쭉이에서 첫차를 건져 올렸다. 흠뻑 젖어 내리는 빠른 손놀림이 반복됐다.

그대로 진리이고, 선의 세계도 따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속에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와 아들 딸과 함께 온 운해숙씨(서울 상계동)는 "그동안 커피, 콜라만 좋아했는데 앞으로는 아홉가지 덕을 갖겠다는 차를 온가족이 애용할 생각"이라며 직접 따온 차를 자랑스럽게 들여다보았다.

글=이은지 사진=고영배 기자



효율수제차 이기영사범의 첫차 때 차뒤음 시연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차는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전통적인 수제차를 직접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구구구프라고 해서 아홉번 뒤고 아홉번 말리는 과정을 통해 차가 만들어 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기에, 첫 뒤음만 제가 시범으로 해 드리고 나머지는 조별로 합을 모아서 함께 뒤어내야 합니다. 차를 만들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사범의 설명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첫 뒤음을 마치고 모락모락 김을 뿜아내는 첫차가 명석위에 올려졌다. 열명씩으로 구성된 조원들이 이제 첫차를 팔레트는 모양으로 둥글게 비비기 시작했다. 첫차를 비비면서 어제밤 처음으로 만난 일행들이 어느새 웃음과 담소를 나누며 친근해졌다.

4시간 만에 마지막 아홉번째 뒤음까지 모두 끝났다. 처음 한 숟가락 생생했던 첫차향이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손으로 세계 집으면 부서질 정도가 되었다.

직접 만들어 우려내 마시는 한잔의 차가 무척이나 향기롭다. 갓 따낸 햇차



불교문화 체험기행단은 각 조별로 남녀노소가 함께 뒤어진 첫차를 둥글둥글 비벼며 녹차 만드는 과정을 조금씩 익혀 나갔다.

### 茶인들의 잔치 '쌍계사 차축제'

### 시음회 · 사진전 · 사생대회 '눈길' 제1회 해능 · 진감선사 헌다례 봉행

17일 쌍계사에서는 '제3회 하동 아생차문 화축제 및 제18회 차의날(5월25일) 기념 차문화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하동 쌍계사 차 축제는 매년 전국에서 2천여명의 차인(茶人)들과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 축제이다.

이 차축제는 차 시배지의 역사적 전통과 천혜의 재배조건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드날리고 있는 화계지역의 차문화 발전과 아생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된다. 각종 차 겨루기를 하고 차로 만든 요리, 차관련 상품, 차술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우리 차에 대한 전국민적 홍보의 장으로도 열리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차의 시배지로 알려진 쌍계사 차시배지 대례식과 차의 날 기념 순계 학술논문발표회가 열렸다. 또 쌍계사 공당에 모셔진 육조해능대사의 정상을 기리는 제1회 육조해능조사와 진감선사헌 헌다공양례도 봉행됐다.

특히 첫차따기 대회, 햇차 시음회, 올해의 명차 선정 등의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참가해 우리 차의 우수성을 맛볼 수 있었다. 이밖에도 차 사진전시회, 차유적지 답사, 차 제조과정 시연, 향토음식집,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글짓기 및 사생대회, 초의선사 더신탐비 참배 등도 열렸다.



하동아생차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올해의 명차 선정대회. 차 전문가의 관광객 3백명이 직접 맛과 향, 빛깔을 보고 명차를 선정했다.

### 건강보조식품허가

## 솔효소정액(松醇素精液) · 솔선식(松仙食) 시판개시!

선(仙)을 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神仙)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추드름(霖霖)을 자랑하는 소나무(杉)나 소나무의 효능을 아예 알지 못 할 수 있겠나.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에 물(水) · 불(火) · 흙(土) · 쇠(金), 네 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 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 소멸하여 자식적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임팩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儀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랑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할과 인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 한방진료병원장 시연선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종자 소나무농장주가 어버이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장(強壯)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醇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 · 솔순 · 솔세방 · 솔마디 · 송화가루 · 송진 · 송근박피 · 송목피 · 송이버섯 · 백봉령 · 적복령 · 백복령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 · 감초 · 표고버섯 · 휴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여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 · 기(氣) · 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 종합영양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갈 것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알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어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후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관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96.57796호(솔효소정액)96.5587(솔선식), 98.3.31(건강보조식품 허가) 앞으로 기적의 우리 소나무 종합강장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 솔효소정액(松醇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